

# 걸프전쟁과

지난해 8월 2일 이라크가 인접한 작은 나라 쿠웨이트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토권을 내세우며 침략하여 점령·병합함으로써 발단된 걸프 사태는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쿠웨이트로부터의 이라크군의 철수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고 추구하고는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대규모전쟁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지난 1월 17일, 美國이 주도하는 28개국의 다국적군측이 이라크에 대하여 대규모 공습을 감행함으로써 걸프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美國을 포함한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단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으나 걸프전쟁이 단기전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최소한 수 개월 지속되든가 혹은 장기전화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2차례의 결의안을 통하여 이라크의 쿠웨이트침략과 병합을 규탄하고 쿠웨이트로부터의 이라크군의 철수와 쿠웨이트의 합법적 정부의 회복을 관철하려 노력하였고, 美國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유엔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에 대하여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하면서까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영토권주장은 불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쿠웨이트에 대한 이라크의 무력침략과 병합은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므로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고, 이라크의 이러한 불법적인 침략행위가 용인되는 경우 다른 나라들에 의한 유사한 불법침략행위를 고무·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대통령의 야심과 팽창정책을 단순히 쿠웨이트를 병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중동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아랍민족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세계 원유매장량의 60%, 세계 원유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中東지역이 비합리적, 비이성적

이며 광신적인 독재자로 인식되고 있고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있는 사담 후세인에 의하여 장악되는 경우, 이것은 원유의 생산과 공급 및 원유가격을 비롯하여 경제, 군사, 외교 등 여러면에서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철수시키고 사담 후세인의 위험한 야심을 저지·봉쇄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설득이나 경제적 압력과 제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불가피함을 국제사회가 인식하였다. 따라서, 美·中·蘇등이 포함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월 15일까지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경우 무력을 사용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28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 시리아 같은 아랍국가들도 포함되어 있고 다국적군의 군사행동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협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 不義와 不法의 낙인이 찍힌 이라크가 승리할 가능성은 전연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걸프전쟁의 발발 자체가 사담 후세인의 엄청난 야심과 거듭된 오산·오판에 주로 기이한 것이지만 승리의 가능성이 없고 전쟁의 계속이 이라크에는 물론 걸프지역과 전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임을 사담 후세인이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쉽게 패배를 인정하고 야심을 버리고 굴복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美國을 비롯한 다국적군 구성국가들 역시 이라크의 완전피멸보다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의 철수와 쿠웨이트정부의 회복, 걸프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의

# 韓國의 利害

全 正 煥

〈국제정치학 박사·국방대학원 교수〉

회복 및 유지, 특히 원유자원의 보전과 원유생산과 공급의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하여 무제한적이고 조급한 군사행동을 감행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걸프지역에서 전투가 종식되고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 개입하는 경우 걸프전쟁은 다국적군과 이라크간의 전쟁이라는 성격에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국가들간의 전쟁이라는 성격이 추가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할 것이고, 특히 이라크가 다국적군이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걸프전쟁은 화·생무기 뿐만 아니라 전술핵무기의 동원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전쟁으로 악화될 것이다.

걸프사태 발생 이후 韓國은 이라크의 불법적인 침략을 응징·제거하고 걸프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유지하려는 유엔의 결의를 존중·지지하고 국제사회와 다국적군의 노력에 협조·동참한다는 입장과 정책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그리고 韓國은 작년 9월 다국적군에 대한 2억2천만달러의 재정지원과 금년, 1월 1백54명으로 구성된 軍의료지원단의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추가로 2억8천만달러의 재정지원과 軍수송기 5대 및 1백50명의 운영병력 파견 결정 등으로 이러한 입장과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걸프사태에 있어서의 韓國의 이러한 입장과 정책 및 행동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고 정당하며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北韓의 불법적인 전면무력남침으로 3년여의 처절한 동족상잔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독재·폐쇄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며 모험주의적인 공산화통일노선을 견지·확책하고 있는 북한과 경쟁·대치하고 있는 韓國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남침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라크의 불법침략행위를 응징·저지하려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하다.

둘째 中東지역은 韓國이 원유수요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진출과 상품·기술 수출의 중요한 대상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中東지역에 있어서 원유의 생산과 공급 및 가격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사활적 이익의 하나이기 때문에 中東의 안정과 평화의 회복을 위한 유엔 및 다국적군의 노력에 韓國이 동참·협조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韓國이 다국적군의 노력에 동참협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해치기 보다 오히려 강화하게 될 것이며 특히 韓美간의 우호·동맹관계와 유대를 강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美國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이러한 우호·협력관계와 유대의 강화는 韓國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넷째 걸프전쟁이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날 것은 확실하며, 전후 中東지역에서의 새로운 평화구조와 전후복구는 美國을 비롯한 다국적군 구성국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 역시 분명하다. 따라서 韓國은 안정·평화 회복을 위한 다국적군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전후 中東지역의 평화구축과 전후 복구에 있어서 응분의 몫을 주장하고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韓國이 국제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는 지원과 협조를 유엔 및 다국적군에 제공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